



여름철 전염성질환의 예방관리

건강한 여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여름철 각종 전염성 질환의 위험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주요 전염성질환으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병원성대장균 O-157장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유행성 각결막염, 농가진 등을 들 수 있다.

1.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 빈도가 높다. 보균자는 균을 계속 배설하지만 아무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염원의 색출이 어렵다. 배설된 병원균이 물이나 음식 등에 오염되어 전염된다. 두통, 발열, 복통, 변비 또는 설사 등이 주요 증세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은 물론, 수질오염의 방지 등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의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2. 파라티푸스

파라티푸스는 전염경로 등이 장티푸스와 유사한 수인성 급성전염병의 하나이다.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에 의해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되며 오염된 식수로 인한 환자 집단발생사례를 가끔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고열, 두통, 느린 맥박 등이 주요증상이며 장천공 및 장출혈, 담낭염, 뇌혈전 등 위험한 합병증을 수반할 수 있다. 환자의 격리치료가 요구되고 장티푸스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예방의 첩경이다.

3. 콜레라

콜레라는 겨울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콜레라균에 오염된 식수나 식품을 통하여 전염된다. 쌀뜨물 같은 다량의 묽은 설사가 주된 증상이며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소아의 경우는 발열과 경련이 날 수도 있다. 환자

의 격리치료가 필수적이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액을 보충하는 동시에 항생제로 치료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충분히 가열된 음식과 끓인 물을 먹어야 한다.

4. 세균성이질

이질에는 세균성과 아메바성이 있으나 발생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세균성이질이다. 이질세균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다른 세균성 질환처럼 위생수준이 발병을 크게 좌우한다.

설사, 복통, 발열이 수반되며 혈액, 점액, 고름이 섞인 대변과 용변 후 개운치 않아 금방 화장실에 가야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항생제로 치료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5. 비브리오패혈증

비브리오패혈증의 병원균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와 조개류 및 바닷물 속에 생존한다. 따라서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다. 바닷물 온도가 17도 이상 올라가는 6월~10월에 환자가 잘 발생한다. 발열과 구토, 설사, 근육통의 증상과 더불어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장출혈과 홍반 및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절기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병원성대장균 O-157

사람의 장내의 일반대장균은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O-157대장균은 생물학적 변이를 일으켜 체내에 소량만 침입하여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균이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병한다.

여름철에는 음식을 날것으로 먹지 않는 것은 물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조리기구도 자주 끓는 물에 소독하여 청결히 하는 동시에 음식을 다룰 때에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7. 일본뇌염

모기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잘 발병된다. 발열과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세를 일으키며 심하면 고열과 혼수 및 마비가 일어나 사망에 이르거나 언어장애와 사지운동 기능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는 8월경에 많이 증식하므로 어린이에게는 그 전에 예방접종을 맞고 뇌염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말라리아

말라리아도 모기에 의하여 매개되며 적혈구와 간세포에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되어 발생한다. 심한 고열과 오한을 수반하며 병원충이 48시간마다 증식하므로 병의 증상은 격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세계보건기구의 말라리아 박멸정책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가 자취를 감춘지 오래였으나 최근 환자 발생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약물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레오지넬라증

병방병의 일종으로 알려진 레오지넬라증은 에어컨과

냉동기의 냉각수 탭이 병원균의 서식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침, 두통, 근육통, 전신권태 등이 주요 증세이며 대개 45일 이면 치유되지만 악화되어 폐렴으로 진전되면 노약자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공공건물의 냉각탑과 저수탱크의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 에어컨의 필터와 물받이 등의 청소 및 소독을 자주 하도록 해야 한다.

10. 유행성 각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은 특히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바이러스성 눈병이다.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많이 끼며 따갑고 이물감으로 고통스럽다. 눈이 많이 붓게 되며 눈물을 흘리고 심하면 눈에 피눈물이 나오기도 한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증상의 차이는 있으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에 크게 유행한 아폴로 눈병이 그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질환이다. 감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효약이 없으므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대중요법으로 관리해야한다. 약 2주일이면 대부분 치유된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접촉성 전염이므로 손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환자가 사용한 수건이나 세면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수영장에서는 물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전염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소독약품에 의한 결막염이 생기기 쉽다.

11. 전염성 피부농가진

피부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화농성 농가진은 무덤고 습기 찬 여름철에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질환이다. 불결한 손톱으로 긁거나 애완동물의 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피부접촉 등에 의해 전염된다. 이발소,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 초기의 증상은 피부에 수포나 농포가 생기고 그것이 터져서 진물이 나고 말라붙어서 황갈색을 띄게 된다.

주로 입이나 코 주위에 많이 발생한다. 연고 등으로 치유되나 호전이 안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방치하면 콩팥이 손상될 수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과 피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환자와의 접촉은 물론 여름철에는 애완동물의 접촉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여름철에는 온 국민이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더위를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문식(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개발팀장·보건학박사)